

나주시, '먹거리 관광 활성화' 총력 지원

영산강 흥어거리 새단장 추진 '나주밥상' 선진 외식문화 확산 먹거리 관광객 500만 유치 목표 "맛과 건강 조화 외식환경 조성"

나주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먹거리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후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음식문화 발전을 목표로 '남도음식거리 조성', '나주밥상 브랜드화', '위생업소 개선', '목사밥상 재현' 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왔다.

대표 먹거리 발굴과 특색있는 음식 거리 조성, 친절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선진 음식 문화를 구축해 먹거리 관광을 500만 관광시대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500년 전통의 속성 흥어의 본고장인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를 다시 찾고 싶은 명품음식거리로 새단장 하고 있다.

영산포 흥어거리는 2023년 전남도 주

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10억원(도비50%·시비50%)을 투입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스토리텔링 종합 안내관, 휴게쉼터, 흥어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환경정비(벽화 및 수목보호대) 등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선진 외식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먹거리 브랜드인 '나주밥상' 지정을 통해 먹거리 관광 명소화에도 힘써왔다.

외식업주의 '건강, 안심, 배려' 3대 실천 서약을 통해 현재까지 음식점 36곳을 나주밥상 지정업소로 운영 중이며 올해도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업소는 '지역 식재료(로컬푸드) 우선 사용', '국산감치자율표시제 인증', '음식 덜어 먹기 그릇 제공', '수저·얇치마 등 위생관리', '남은 음식 폐기', '입식 테이블화', '청결한 주방·화장실 문화', '종사자 친절 서비스'를 실천한다.

시는 나주밥상 지정표지판 부여, 음식문화 개선물품,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축된 소비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음식점 27곳에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투입해 주방 환경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을 지원하며 영업주와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범음식점(53곳) 상수도 비용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음식점 200여 곳엔 앞치마와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나주시는 올해 빛가람동 일원에 '위생등급 특화구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용객이 많은 맛집 거리를 지정해 위생등급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음식거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관내 음식점 경영주 40명을 대상으로 6주 과정의 '제1기 수라클럽 아카데미'를 운영, 경영주들의 기본 역량과 경영 능력 향상, 경영 마인드 변화를 지원했다.

나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먹거리 발굴과 전국 요리대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도 눈길을 끈다.

고유 음식문화 맥을 이어왔던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이 지난해 11월 재개관을 통해 음식·관광·문화를 융복합한 새로운 앵커스토어로 새 출발을 알렸다.

문화관에서 영산강과 나주평야의 풍부한 산물로 만든 독특한 음식 자원을 활용해 '목사밥상'을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문화관은 목사밥상 체험과 더불어 로컬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락·밀키트·디저트 등 먹거리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나주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정책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힘써가겠다"며 "맛과 건강이 조화로운 나주 음식문화의 우수성과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먹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사과 다축 동계전정 현장교육 곡성군, 고품질 사과 생산 등

곡성군은 지난 14일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사과 다축 동계전정 현장 교육'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과 다축 재배는 중심이 되는 주지는 없어지고 여러 개의 작은 원줄기가 위로 자라 열매가 맺히는 방식이다.

다축 평면 사과 재배는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3배 이상의 생산량을 달성하고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며 기계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미래형 수형으로 여겨져 전국적으로 재배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2023년부터 국비 사업을 시작으로 사과 다축 재배단지를 육성해 지난해 기준 재배면적 7ha, 22농가까지 육성했으며 올해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과 다축 재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과주산단지 농업마이스터를 강사로 초빙해 관내 사과 다축 재배 농업인 및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다축 수세관리 및 전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곡성=김대명 기자

지역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함평군,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함평군이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함평군 보건소는 18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함평군민과 함평군 소재 회사에 다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함평군 보건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 주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낮추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 감소를 목표로 마련됐다.

함평군 보건소는 참여자에게 스마트폰 앱(채움건강)과 연동할 수 있는 활동량계 디바이스를 무료로 제공해 평소 주민들의 활동량과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활동량과 건강행태 개선 정도 등에 따라 우수한 참여자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3회의 건강검진(최초, 3개월, 6개월)과 24주 동안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 전문가의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19~64세 함평군민이나 함평군 소재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복부비만,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을 1개 이상 보유한 사람은 함평군 보건소(061-320-2437)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이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았거나 관련 약을 복용 중인 질환자는 제외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군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함평군보건소 직원이 혈당 검사를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알기 쉬운 손불면정' 책자 배포

투명 행정 구현·주민 복지 증진

함평군 손불면이 2025년도 '알기 쉬운 손불면정' 책자를 배부하며 투명한 행정 구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나섰다.

함평군 손불면은 18일 2025년도 '알기

쉬운 손불면정' 책자를 1000부 제작해 관내 53개 경로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손불면은 노인인구가 47%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건·복지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을 사진과 그림 자료를 함께 수

록해 어르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임수영 손불면장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군·면정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드려 행복하고 잘사는 손불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운영

배출량 따른 수수료 부과

장성군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를 2월부터 정상 운영한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다.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종량기에 인식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배출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해 자동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언제든 필요한 양만큼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위생적이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장성군은 앞선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장성월드클래스 1·2차 아파트 두 곳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4대를 시범 설치해 효용성 등을 확인했다. 이달부터 요금 부과 등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장성군은 주민 선호도와 요청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종량기 설치 지역을 늘려갈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올해의 책' 선정 시민 선호도 조사 나주시, 독서문화 캠페인 일환

나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나주시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주시 올해의 책'은 시민들이 직접 도서를 선정하고 다양한 연계 행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책 읽는 나주'로 발전하기 위한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이다.

나주시는 시민 추천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올해의 책 후보 도서 13권을 선정했다. 후보 도서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문학, 일반 비문학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졌다.

어린이 도서는 △행운이 구르는 속도(김성운) △달빛초등학교 귀신부(임정순) △열세 살의 견기클럽(김혜정) 등 3권이다.

청소년 도서는 △달리는 강하다(김정굴) △울의 시선(김민서) △우리는 마이너스 2야(전앤) △너를 위한 B컷(이금이) 등 4권이다.

일반 문학 도서는 △카페 네버랜드(최난영) △단 한 사람(최진영)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문상훈) 등 3권이며 일반 비문학 도서는 △내면소통(김주환) △시대예보: 호명사회(송길영) △다시, 역사의 쓸모(최태성) 등 3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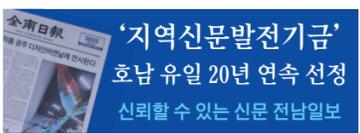
시민 선호도 조사는 나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나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이나 관내 공공도서관(나주시립, 빛가람시립, 나주공공, 남평) 및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패널을 통해 가능하다.

조사 결과 각 부문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도서 1권씩 총 4권이 '나주시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도서는 '2025년 올해의 책' 선포식에서 공식 발표되며 작가 초청 강연회, 테마 도서 전시회,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의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